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지난 16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아스널과 2008-2009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홈 경기에서 0-0로 비겨,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프리미어리그 3년 연속 우승을 확정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성, 맨유 3연패 중심에 우뚝 서다

아스널전 오심 탓에 우승 자축골 놓쳐
리그 25경기 출장 2골 2도움 맹활약

‘선발 명단에서 빠져지만 그리고 오심 탓에 우승을 자축할 결승골을 놓쳤지만..’

‘산소 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2% 아쉬움 속에 맨유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년 연속 우승 주역으로 우뚝 섰다.

박지성은 16일(한국시간)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2008-2009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 37라운드 경기 선발 엔트리에 빠진 뒤 후반 21분 카를로스 테베스 대신 교체 투입돼 활발한 움직임으로 0-0 무승부에 힘을 보탤다.

맨유는 시즌 27승6무4패(승점 87)로 두 경기를 남겨놓은 2위 리버풀(승점 80)을 승점 7점차로 따돌려 오는 24일 헐 시티와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안방에서 우승 삼매인을 터뜨렸다.

박지성은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맨유의 통산 18번째 우승이 확정되자 동료와 우승 기쁨을 만끽했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박지성과 포옹하고 나서 등을 두드리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선발 출제 예상과 달리 교체 멤버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박지성은 후반 21분 퍼거슨 감독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광범한 0-0 균형이 이어지자 테베스를 빼고 박지성을 기용해 분위기 전환을 꾀하려는 퍼거슨 감독의 승부수였다.

그러나 아쉬운 장면이 연출됐다.

박지성은 후반 36분 미드필드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침투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보고 공을 찰러준 뒤 다시 호날두의 패스를 받아 오



른발로 가볍게 차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순간 부심의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갔다. 호날두가 수비수 산야보다 후방에 있었음에도 부심의 착오 탓에 결승골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무산된 것이다. 그럼에도 박지성의 이번 시즌 정규리그 우승 기여도는 퇴색되지 않는다. 프리미어리그 3연패 주역으로 손색이 없다. /연합뉴스

박지성은 올 시즌 정규리그 팀의 37경기 중 이날까지 25경기에 출전했고 이 가운데 21경기는 선발이었다. 특히 풀타임 활약은 10차례나 됐다. 나머지 선발 11경기에서도 모두 후반에 교체될 만큼 강철 체력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박지성이 선발 출전한 21경기에서 맨유가 거둔 성적은 14승4무3패. 지난 시즌의 ‘박지성 선발 = 팀 승리’ 공식은 깨졌지만 박지성은 자질 불모는 체력으로 팀의 활력소가 됐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얻은 박지성의 공격포인트는 2골 2도움. 박지성은 지난해 9월22일 첼시와 라이벌 대결 때 시즌 첫 골을 터뜨리며 값진 1-1 무승부에 이바지했고 지난 3일 미들즈러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2-0 승리에 앞장섰다.

박지성은 또 이번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8경기(4경기 선발)에 나와 한 골을 사냥하며 팀을 결승 무대로 이끌었다. 또 FA컵에서도 3경기 출장에 한 차례 골문을 갈랐다. 이번 시즌 총 네 골을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그는 지난해 8월 한국 축구 대표팀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르는 동안 무릎 통증이 재발하는 바람에 정규리그 합류가 한 달 정도 늦는 악재를 딛고 지열한 주전 경쟁을 뚫었다.

박지성의 25경기 출장에 2골은 라이언 기스(28경기 출전, 2골 7도움)에 조금 못 미치지만 같은 포지션의 루이스 나니(12경기 출전, 1골 2도움)를 압도했다. 또 미드필더 대런 플래처(25경기, 3골)와 마이클 캐릭(28경기, 4골 5도움)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다.

지난 6일 아스널과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선제골을 뽑으며 맨유의 결승 진출을 앞장섰던 박지성.

오는 28일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단판 승부로 열린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결승에서도 박지성이 아시아인 최초로 폼의 무대를 밟으며 ‘더블 우승’(정규리그·챔피언스리그 우승 2관왕)을 완성하는 주인공이 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김연경 일본행

1부리그 JT마블러스 입단

‘전라도의 딸’이자 국내 여자프로배구 최고의 스타 김연경(21·192cm·흥국생명·사지)이 일본 프로무대서 뛰게 됐다.

흥국생명 구단은 17일 “김연경이 다음 시즌부터 일본 여자프로배구 1부리그 JT마블러스에서 뛰기로 결정했다”면서 “연봉은 지난 시즌 받았던 1억2천2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기간이나 연봉 등 구체적인 영입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단 관계자는 “도레이 에로우즈 등 일본 3개 구단과 접촉했지만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의 부진으로 성적이 좋지 않았던 JT가 가장 적극적으로 김연경을 원했다”라고 설명했다.

JT마블러스는 2006-2007, 2007-2008 시즌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강팀이지만 지난 시즌에는 일본리그 10개 팀 중 9위에 머물렀다.

올 시즌 흥국생명을 챔피언에 올려놓고 챔피언 최우수 선수에도 뽑힌 김연경은 지난 4월 열린 한·일합배치(광주광역시체육관)에서도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MVP까지 거머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스포츠 스타이다.

김연경은 당초 이탈리아 등 유럽행을 희망했지만 지명도가 아직 낮아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국가대표 차출이 원활하려면 유럽보다 일본에서 뛰는 것이 낫다는 점도 일본행을 결정한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김연경은 부모가 모두 구레 출신인 ‘전라도의 딸’. 아버지 김동길(53)씨는 토지매입 원내리, 어머니 이금옥(49)씨는 간전면 금산리가 각각 고향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3번째 우승 메달 건 박지성

“맨유 입단후 최고 시즌
챔스컵 우승 힘 보탤것”

“우승을 위해 노력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통산 18번째 정경기 우승에 힘을 보탠 박지성(28)이 맨유의 ‘더블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성은 지난 16일(한국시간) 오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아스널과 2008-2009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21분 카를로스 테베스와 교체출전해 맨유의 우승 순간을 그라운드에서 동료와 함께 맞이했다.

박지성은 경기가 끝나고 “홈에서 우승해서 더욱 기쁘다. 우승을 위해 노력해왔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며 “개인적으로 맨유 입단 이래 가장 좋은 시즌이었다. 팀 성격도 좋아서 더욱 만족스럽다”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박지성은 특히 “정규리그 우승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 당면 과제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며 “더블 달성’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이적설이 제기된 테베스의 잔류 가능성을 묻는 말에 “테베스가 이번 시즌 보여준 능력은 대단했다. 개인적으로 테베스가 팀에 남길 원한다. 팀 동료 뿐 아니라 팬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연합뉴스

윤석영 결승골 ... 전남 4연승 질주



광주 상무 7경기 연속 무패행진, 2위 고수

전남 드래곤즈가 신나는 4연승 질주를 펼쳤다. 전남은 17일 오후 순천 팔마구장에서 열린 2009 K-리그 10라운드에서 윤석영의 결승골로 울산 현대를 1-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전남은 올 시즌 4무 1패 뒤 4연승을 질주한 반면 울산은 4패(2승 3무)째를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위기는 전남에게 먼저 왔다. 전남은 전남 31분 김응진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렸으나 염동균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다.

전반 위기를 무사히 넘긴 전남은 후반 13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윤석영이 결승골을 뽑아내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부산은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치러진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강승조와 양동현, 안성민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이현승이 한 골을 뽑는 데 그친 전북을 3-1로

무리했다. 한편 광주 상무는 지난 16일 경남FC와 홈 경기에서 0-0으로 비겨 최근 7경기 연속 무패행진(5승2무)을 계속했지만 선두 자리는 빼앗지 못했다.

박주영 5호골 폭발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에서 활약하는 박주영(24)이 시즌 5호골을 터뜨렸다.

박주영은 17일(한국시간) 프랑스 모나코 루이2세 경기장에서 열린 2008-2009 프랑스 정경기리그(리그1) 36라운드 발랑시엔FC와 홈 경기 전반 6분에 오른발 강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내며 시즌 5호골을 사냥했다.

프레데릭 니마니와 투톱으로 선발 출전한 박주영은 수비 진영에서 캐물 메리앙이 길게 넘겨준 공을 수비수 한 명과 경합 끝에 파

낸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중거리 강슛을 날려 그물을 흔들었다.

이번 시즌 5골, 5도움을 기록하게 된 박주영은 28일 소집되는 국가대표팀에 기분 좋게 합류할 수 있게 됐다.

호남대 표대학선수권 준우승

호남대학교(총장 장병완)가 아시아 5개국 이 참가한 제2회 아시아 대학생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8일부터 중국 호북성 무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호남대학교는 중국, 홍콩, 몽골, 스리랑카 대표팀을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14일 오후 치러진 한양대의와의 결승전에서 2-3으로 석패했다.

국제대회 첫 출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호남대 축구부는 오는 16일부터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리는 'KBS n배 제6회 전국춘계 1, 2학년 대학축구대회'에 출전해 우승에 도전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